

거리두기 3단계...은행 문 오후 3시 30분 닫는다

광주·전남 시중은행 9시30분에 열고 일찍 닫아...내달 8일까지
지역 농·축협,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불편 우려 자율 조정기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27일, 광주·전남지역 시중은행과 일부 2금융권이 영업점 1시간 단축 운영에 일괄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단축 운영이 있었지만, 광주·전남지역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줄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창구 이용이 잦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우려된다.
이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이어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으로 단축 운영을 확대한 은행은 신한·우리·KB국민·하나·SC제일·NH농협·SH수협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이다.

이들 은행은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보다 한 시간 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점포를 운영한다.
변경된 영업시간은 거리두기 3단계가 끝나는 다음달 8일(영업일 8월6일 기준)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광주은행도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광주 76개·전남 42개 등 전국 143개 점포 운영을 1시간 단축한다.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체 영업점을 오는 8월6일까지 단축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단 변경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로, 30분만 단축했다. 단축 운영 제외 점포는 구청 입점 영업점과 법인 출장소, 출입국 관리소 등이다.
우리은행 영업점은 광주 11곳·전남 9곳에 있다. 광주지역에는 광산구 5개와 동·남구 각 2개, 서·북구 각 1개 있다. 전남에는 광양 3개, 여수 2개, 나주 2개, 목포·순천 각 1개 분포했다.
우리은행은 앞서 26일 수도권 영업점부터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측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니 방문 전 영업점에 문의해야 한다"며 "현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거나 강화될 경우 단축운영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광주·전남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한다. 이 같은 변경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유지

되는 기간 동안 적용된다. 국민은행 영업점은 광주 13개·전남 14개 있다.
국민은행이 서구 농성동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만든 '영업시간 특화점포'는 기존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30분 1시간 단축 운영한다.
SC제일은행도 오는 8일까지 동구 금남로, 서구 치평동 등 광주 2곳과 목포, 여수, 순천 등을 포함해 비수도권 영업점까지 단축 운영을 확대한다.
하나은행(광주 10개·전남 9개)도 다음달 8일까지 1시간 단축 운영에 동참한다. 신한은행(광주 10개·전남 11개)도 이날 단축 영업 확대에 들어갔다.
광주 29개·전남 67개 NH농협은행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1시간 단축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 들어간다. 농협은행은 이달 12일부터 수도권 소재 점포 영업시간을 줄여왔다.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는 상호금융 점포는 고객객층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광주 14개 지역농협 가운데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30분)을 변경한 점포는 이날 기준 서광주농협(오전 9시 30분~오후 4시·1시간 단축)과 동곡농협(오전 9시~오후 4시·30분 단축) 등 2곳이다. 전남 146개 조합이 운영하는 460개 점포도 '장날'에는 정상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광주·전남지역 6개 SH수협은행도 단축 운영에 들어갔으며, 회원조합 66개 점포 영업시간은 재량에 맡겼다.
한편 정부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모든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0시부터 8월8일 밤 12시까지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화점·대형마트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30일부터 3000㎡ 이상 점포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 방문객들은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방안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플, 큐알(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출입명부 관리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때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다.
이들 매장은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는 안심플과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관계자는 "강화된 방문객 관리방안에 고객들이 긴 줄을 서거나 고령층 고객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위니아딤채, 백신 냉동고 국내 판매 시작

조달청 물품 등록 완료

위니아딤채는 백신보관용 혈액냉동고인 일명 '메디박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달청 등록으로 공공 수요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전문 영업점을 발굴해 상급 의료원과 국공립 대형병원 등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25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급 추진에 나서고,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형 개인병원 등 민간부문 수요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위니아딤채는 해외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메디박스의 미국 수출을 완료했으며, 7월 필리핀 업체와도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을 개시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백신 접종 및 보관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사전계열사인 위니아전자의 자사 해외판매법인이 있는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 등을 우선으로 판매를 계획 중이다.
한편 위니아딤채의 메디박스는 기존 백신 냉동고의 사용구간 온도보다 넓은 온도를 적용해 백신 보관의 사용성을 확대했으며, 용량 92ℓ에 무게 65kg의 소형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집관족 늘며 세로 TV 인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9층 삼성전자 매장에서 화면을 가로 또는 세로로 회전해 볼 수 있는 '더 세로 TV'를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2020 도쿄올림픽을 '집관'(집에서 관람)하거나 공연 영상을 '세로 직캠'으로 즐기는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롯데쇼핑 제공>

'비트코인 결제 허용' 아마존 "사실 아니다"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마존 대변인은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이어진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대한 탐색은 계속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경제매체 시티 A.M.이 25일 익명의 내부자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연말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보도는 아마존이 22일 디지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낸 것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실제 이 보도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아마존의 결제 수단 허용 기대감 등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으로 잠시 4만달러선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아마존이 이를 부인한 데 따라 현재는 3만7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가상화폐 업체인 테더의 임원진이 테더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수년 전 은행들에 숨긴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테더는 이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코인은 전체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